

직무에 대한 임상실습 지도자와 신입 작업치료사의 견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성인 작업치료사를 중심으로-

View of Occupational Therapy Fieldwork Supervisor

and Novice Occupational Therapists in Job

: Focusing on Adult Occupational Therapists that Work on Hospital

이춘엽

가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Chun-Yeop Lee(bommm81@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 직무에 대해 임상실습 지도자와 신입 작업치료사의 견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국내 58개의 의료기관에서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117명의 작업치료사와 신입 작업치료사 104 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중위 수와 범위를 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임상실습 지도자는 실습생을 평가할 때 기본적인 소양과 매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둘째, 신입 작업치료사는 대부분의 직무에서 중요도는 10점, 수행도는 7점, 만족도는 6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직무에 대한 임상실습 지도자의 중요도는 중재계획의 문제 확인과 치료계획 수립이 1위와 2위로 나타났지만, 신입 작업치료사의 수행도는 2위를 제외한 5위 내의 4개가 모두 평가 직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신입 작업치료사가 겪는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상실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중심어 : | 신입 작업치료사 | 임상실습 지도자 | 작업치료사 직무 |

Abstract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view of occupational therapy fieldwork supervisor and novice occupational therapists in job. 117 fieldwork supervisor and 104 novice occupational therapists that work on 58 domestic hospitals were chose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 20.0 statistics package for Window which determined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median, and range.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fieldwork supervisor considered that basic refinement and manners are most important when they evaluate student. Second, novice occupational therapists responded that importance is 10 points, conduction is 7 points, and satisfaction is 6 points in general job. Third, importance of fieldwork supervisor for the job were problem identification and established intervention plan in intervention plan appears over the first 2 above. But, conduction of novice occupational therapists for the job were evaluation in all 4 of the top 5 except 2 pla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direction guidance of fieldwork to the solve difficulty of novice occupational therapists.

■ keyword : | Fieldwork Supervisor | Job of Occupational Therapy | Novice Occupational Therapists |

* 본 논문은 가야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접수일자 : 2015년 06월 01일

수정일자 : 2015년 06월 25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7월 10일

교신저자 : 이춘엽, e-mail : bommm81@naver.com

I. 서론

작업치료에서 임상실습은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고, 학교와 임상 사이를 연결해 주는 필수적인 것이다[1]. 또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환경에서 이론과 실행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2]. 임상실습의 경험은 작업치료과정을 관찰하고 참여하게 해줌으로써 향후 작업치료사가 되었을 때 직무를 이행하는 과정의 질을 더 높게 만들어준다[3]. 임상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점진적으로 수행과 책임감의 수준을 더 올려 본인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기를 기대한다[3].

한국작업치료교육인증위원회(2014)에 따르면, 세계작업치료연맹(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WFOT) 인증 기준 중 임상실습에서 총 1,000시간 이상의 실습과 한 기관에 최소 2개월간의 실습을 하도록 권고하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이는 작업치료사의 자질 확보를 위해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하였다[4]. 국내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총 실습 시간을 살펴보면, 2004년은 4년제가 937시간, 3년제가 387시간이었으나[5], 2013년은 4년제가 983.5시간, 3년제가 517.2시간으로[6] 총 실습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예전에 비해 실습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적으로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이득이 생기는 반면, 양적 증가를 한 만큼 임상실습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서의 실습도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6].

실제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의 자격에 부합하는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자격시험인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7]. 이러한 배경으로 현재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전공 공부는 국가시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8], 이론과 실행을 통합하는 임상실습에 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로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받았지만 치료 경험이 많이 부족한 신입 작업치료사들은 임상에서 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가장 어려워하고 있었다[9]. 또한 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하면 곧바로 임상에서 근무를 해야 하므로 현장 실무 중심의 임상실습교

육을 강조하지만[10], 많은 기관에서 신입 작업치료사를 채용하였을 때 몇 개월의 임상실습 과정을 이수하였음에도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 부가적인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게 된다.

한편 작업치료와 관련해 체계 마련을 위한 표준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역량지표를 개발하거나[11], 임상용어체계를 표준화하거나[12], 임상실습체계를 표준화하거나[6], 국가시험 과목을 개선하거나[13][14], 직무분석[15-18]을 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직무분석은 최근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더 나아가 국가시험과 관련해 직무능력의 상관성을 보는 연구로 발전되기도 하였다[7]. 현재를 반영한 최신의 직무분석은 변화하는 역할과 직무의 다양성에 따른 작업치료사의 직무를 새롭게 정립하고, 현재의 직무를 학교교육과 임상실습,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로 활용이 될 수 있다[15].

따라서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 직무를 토대로 임상실습의 교육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즉, 작업치료사 직무에 대한 임상실습 지도자와 신입 작업치료사의 견해와 함께 임상실습 지도자의 중요도와 신입 작업치료사의 수행도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신입 작업치료사가 겪는 직무 수행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 임상실습 지도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임상실습은 향후 업무수행능력을 결정짓는 주요한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전 연구에서 다루었던 실습 체계에 관한 개선[5][19][20]뿐만 아니라 직무 중심의 실습 내용에 관한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전국의 58개 의료기관에서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117명의 작업치료사와 경력 3년 미만의 신입 작업치료사 104명을 대상으로 작업치료사 직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로,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서 국내 작업치료

실이 있는 기관의 자료를 받아 인구의 수와 작업치료실이 있는 기관의 수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인원을 배분한 후 그 수에 맞게 층화임의표본 추출로 기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500 기관 중 전화통화로 본 설문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기관 100곳에 우편 혹은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여 이 중 228부가 회수되었고, 답변이 불충분하게 기입된 7부를 제외한 221부를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이향숙, 장기연, 정민예, 구인순과 우희순(2014)의 연구에서 작업치료사 직무 사항을[15], 송지호와 김미원(2013)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교육의 장점과 단점을[21], 안성자와 안소윤(2012)의 연구에서 실습생 평가 시 중요 내용에 관한 사항을[22]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작업치료사 10명과 임상경력 3년 미만의 신입 작업치료사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추가교정을 통해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임상실습 지도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설문지는 5영역 5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특성이 8문항으로 폐쇄형의 질문을 하였고, 임상실습 교육의 장점 및 단점이 2문항으로 중복응답을 하도록 하였으며, 실습생 평가 시 중요 내용이 1문항으로 4점 척도를 적용하여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가 나오도록 하였다. 또한 임상실습의 전반적인 내용 및 개선에 관한 주관식 4문항은 개방형의 질문을 하였고, 임상실습 지도 시 고려하는 작업치료사 직무의 중요도 37문항은 5점 척도를 적용하여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가 나오도록 하였다.

신입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사용한 설문지는 3영역 4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특성이 7문항으로 폐쇄형의 질문을 하였고, 직무에 대한 중요도, 수행도, 만족도가 4문항으로 개방형의 질문과 함께 10점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작업치료사 직무의 수행도 37문항은 5점 척도를 적용하여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가 나오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는 SPSS 20.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 특성, 임상실습 교육의 장점 및 단점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실습생 평가 시 중요한 내용과 임상실습 지도자의 중요도, 그리고 신입 작업치료사의 수행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신입 작업치료사 직무의 중요도, 수행도, 만족도는 중위수와 범위를 구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특성

임상실습 지도자는 여자가 85명(72.6%)으로 남자보다 많았고, 연령은 25세 이상부터 30세 미만이 67명(57.3%)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은 29.03세였다. 경력은 3년 이상부터 6년 미만이 47명(40.2%)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6.03년이었으며, 최종학력은 학사가 51명(43.6%)으로 가장 많았다. 직위는 사원이 87명(74.4%)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지역은 서울·인천·경기가 44명(3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기관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이 42명(36.0%)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기관의 작업치료사 수는 10명 미만이 57명(48.7%)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은 15.93명이었다[표 1].

신입 작업치료사는 여자가 78명(75.0%)으로 남자보다 많았고, 연령은 25세 미만이 62명(59.6%)으로 25세 이상보다 많았으며, 평균은 24.33세였다. 경력은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이 49명(47.1%)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은 1.37년이었으며, 최종학력은 전문학사가 56명(53.8%)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지역은 서울·인천·경기가 41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기관은 요양병원이 37명(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기관의 작업치료사 수는 10명 미만이 51명(49.0%)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은 15.72명이었다[표 2].

표 1. 임상실습 지도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특성 (N=117)

특성	구분	n	%
성별	여	85	72.6
	남	32	27.4
연령	25세 미만	8	6.8
	25세 이상 ~ 30세 미만	67	57.3
	30세 이상 ~ 35세 미만	31	26.5
	35세 이상	11	9.4
	M ± SD	29.03 ± 4.57	
경력	3년 미만	36	30.8
	3년 이상 ~ 6년 미만	47	40.2
	6년 이상	34	29.0
	M ± SD	6.03 ± 3.59	
최종학력	전문학사	45	38.5
	학사	51	43.6
	석사·박사	21	17.9
직위	사원	87	74.4
	주임	11	9.4
	팀장	9	7.7
	실장	8	6.8
	기타	2	1.7
근무지역	서울·인천·경기	44	37.6
	부산·대구·울산·경상	28	23.9
	대전·충청	23	19.7
	광주·전라·강원·제주	22	18.8
	M ± SD	15.93 ± 14.59	
근무기관형태	종합병원 ¹ ·상급종합병원 ²	42	36.0
	전문병원 ³	28	23.9
	요양병원 ⁴	26	22.2
	의원 ⁵ ·병원 ⁶	21	17.9
작업치료사수	10명 미만	57	48.7
	10명 이상 ~ 30명 미만	34	29.1
	30명 이상	26	22.2
M ± SD	15.93 ± 14.59		

1: 100병상 이상
 2: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예: 재활병원)
 4: 요양병상을 갖춘 기관
 5: 30병상 미만
 6: 30병상 이상~100병상 미만

2. 임상실습에 관한 지도자의 견해

임상실습 지도자에게 임상실습 교육의 장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지도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므로 치료사가 자극을 받고 발전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응답이 92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실습생 교육을 통해 후배 양성에 일조할 수 있다.”가 62명(24.0%), “실습생이 치료실 정리, 환자 이송, 치료 보조 등의 업무를 해주어 도움이 된다.”가 52명(20.2%)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임상실습 교육의 단점에 대해서

표 2. 신입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특성 (N=104)

특성	구분	n	%
성별	여	78	75.0
	남	26	25.0
연령	25세 미만	62	59.6
	25세 이상	42	40.4
	M ± SD	24.33 ± 2.04	
경력	1년 미만	27	26.0
	1년 이상 ~ 2년 미만	49	47.1
	2년 이상 ~ 3년 미만	28	26.9
M ± SD	1.37 ± 0.87		
최종학력	전문학사	56	53.8
	학사	47	45.2
	석사	1	1.0
근무지역	서울·인천·경기	41	39.4
	부산·대구·울산·경상	27	26.0
	대전·충청	18	17.3
	광주·전라·강원·제주	18	17.3
근무기관형태	요양병원 ¹	37	35.6
	종합병원 ² ·상급종합병원 ³	26	25.0
	전문병원 ⁴	24	23.1
	의원 ⁵ ·병원 ⁶	17	16.3
작업치료사수	10명 미만	51	49.0
	10명 이상 ~ 30명 미만	32	30.8
	30명 이상	21	20.2
M ± SD	15.72 ± 14.25		

1: 요양병상을 갖춘 기관
 2: 100병상 이상
 3: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
 4: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예: 재활병원)
 5: 30병상 미만
 6: 30병상 이상~100병상 미만

는 “치료 업무 외에 해야 할 업무가 많은데 실습지도도 해야 하므로 업무가 과중된다.”가 95명(40.3%)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실이 혼잡하고 환자들은 치료사가 본인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한다.”가 81명(34.3%)으로 많이 나타났다[표 3].

실습생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으로는 기본적인 소양과 매너가 3.91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출석과 레포트가 3.66점, 의사소통능력이 3.37점이었으며, 전공지식은 3.0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4].

임상실습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임상실습의 문제점으로 학교에서는 작업 기반의 다양한 작업치료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임상엔 탑테이블 활동(Top-table activity)과 도수치료(Manual therapy)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론과 임상과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학교교육만으로 임상적용이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마다 그리고 임상마다 표준화된 교과과정 혹은 임상실습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만 한꺼번에 실습을 나와서 지도에 어렵다고도 하였다. 학생의 자질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신 용어를 배우고 국가고시 위주의 학습이 되어 영어를 습득하려 하지 않으며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고 작업치료를 받는 대상의 질화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기본적인 태도와 관련된 인성을 갖추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치료사의 자질에 관련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임상실습 교육보다 치료사의 보조업무를 하게 하거나 참여보다는 관찰 그리고 이론 위주의 실습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임상실습 교육의 문제에 대한 개선의 노력으로 학생들에게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로 참여를 많이 시키고 환자의 문제점을 찾고 중재계획을 세우기 위해 토론하며 작업 기반의 치료를 위하여 일상생활동작훈련 치료를 많이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실습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되,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자신감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학생의 인성과 관련해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임상실습 교육과 관련해 근무기관에 바라는 점은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고 같은 기간에 교육 받는 실습생의 수를 제한하기를 원하였다. 실습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점심 식사비를 할인하거나 지원해주기를 원하였다. 치료사에 대해서는 임상실습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노력한 만큼의 실습비 보수와 같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임상실습 교육과 관련해 학교에 바라는 점은 기본적인 인성과 지식 교육을 가장 많이 강조하였다. 현재 임상에서 많이 필요한 지식을 강의하고 임상실습 교육에서 필요한 내용을 문서화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표 3. 임상실습 교육의 장점 및 단점(중복응답)

구분	내용	n	%
장점	지도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므로 치료사가 자극을 받고 발전하는 기회가 된다	92	35.7
	실습생 교육을 통해 후배 양성에 일조할 수 있다	62	24.0
	실습생이 치료실 정리, 환자 이송, 치료 보조 등의 업무를 해주어 도움이 된다	52	20.2
	우수한 인재를 발견하고 채용으로 연계할 수 있다	45	17.4
	병원 이미지가 향상된다	7	2.7
단점	치료 업무 외에 해야 할 업무가 많은데 실습지도도 해야 하므로 업무가 과중된다	95	40.3
	치료실이 혼잡하고 환자들은 치료사가 본인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한다	81	34.3
	교육에 대한 부담, 지식의 한계, 학생들에게 감시당하는 느낌 등의 심리적 부담이 든다	30	12.7
	병원의 내부 상황이 노출되는 것이 우려된다	22	9.3
	장비 및 도구 등의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8	3.4

표 4. 실습생 평가 시 중요 내용

내용	중요도 (M ± SD)
기본적인 소양과 매너	3.91 ± 0.36
출석과 레포트	3.66 ± 0.58
의사소통능력	3.37 ± 0.55
전공지식	3.00 ± 0.60

3. 직무에 대한 신입 작업치료사의 견해

신입 작업치료사가 생각하는 상담, 평가, 중재계획, 중재의 직무는 중요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행도, 마지막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요도에서는 교육관리(8점)를 제외한 모든 직무의 중위수가 10점이었고, 수행도에서는 교육관리(6점)와 자기개발(5점)을 제외한 모든 직무의 중위수가 7점이었으며, 만족도는 중재계획(5점)과 자기개발(5점)을 제외한 모든 직무의 중위수가 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신입 작업치료사들은 각 직무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상담 시에는 환자가 인지 저하와 언어 장애가 있는데 가족 보호자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로 있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고 목표 설정도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 과정도 어렵고 환자는 신체적 회복만을 강조하고 있어 가장 접근이 필요한 작업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초기 상담 시 시간이 부족하여 환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힘들고 작업치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환자에게 작업치료에 대해 설명

하는 것과 예민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어렵다고 하였다.

평가 시에는 시간과 도구가 부족하고, 아직 매뉴얼 숙지가 되지 않아 평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였다. 또한 본인이 정확하게 평가를 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고, 인지 저하와 언어 장애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 혹은 평가를 안 하려고 할 때 힘들다고 하였다.

중재 계획 시에는 환경의 제약으로 정말 필요한 중재의 계획이 어렵고 환자가 원하는 목표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다고 하였다.

중재 시에는 도구가 부족하여 반복적인 중재가 이루어지고, 중재의 효과에 대한 변화가 아주 조금씩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을 때 환자의 동기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으며, 치료실 환경에서는 다양한 작업수행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교육 및 관리 부분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을 해도 협조가 안 되어 의지가 없거나 혹은 고집이 너무 강하거나 보호자가 담당해서 그냥 다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문서 및 차트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때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자기계발에서는 주로 작업치료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데 교육비가 부담되고, 토요일 근무인 경우나 다른 지역에서 교육이 진행되면 수강이 어려우며, 교육을 수강하더라도 임상 여건과 연결되지 않는 내용이 많아 임상 적용이 어렵다고 하였다.

표 5. 직무에 대한 신입 작업치료사의 중요도, 수행도, 만족도

구분	중요도		수행도		만족도	
	중위수	범위	중위수	범위	중위수	범위
상담	10	7~10	7	1~10	6	1~10
평가	10	5~10	7	1~10	6	1~10
중재계획	10	7~10	7	1~10	5	1~10
중재	10	8~10	7	1~10	6	1~9
교육관리	8	5~10	6	1~10	6	1~10
자기계발	10	7~10	5	1~10	5	1~10

4. 임상실습 지도자의 중요도와 신입 작업치료사의 수행도의

작업치료사 직무의 중요도와 수행도의 순위를 살펴

보면, 1~5위 내에 임상실습 지도자와 신입 작업치료사 모두 일상생활활동 평가(3위/4위)가 있었다. 다만 임상실습 지도자의 중요도에는 문제 확인(1위), 치료계획 수립(2위), 일상생활능력 훈련(4위), 평가계획 수립(5위)이, 신입 작업치료사의 수행도에는 상지 기능 평가(1위), 내담자 정보 확인(2위), 신경-근육-골격계 및 운동 관련 기능 평가(3위), 움직임 능력 평가(5위)가 있어 두 그룹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직무에 대한 임상실습 지도자의 중요도는 중재계획의 문제 확인과 치료계획 수립이 1위와 2위로 나타났지만, 신입 작업치료사의 수행도는 2위를 제외한 5위 내의 4개가 모두 평가 직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6].

IV. 고 찰

본 연구는 국내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성인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대한 임상실습 지도자와 신입 작업치료사의 견해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임상실습 지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하는 내용과 신입 작업치료사가 수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덜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임상실습 지도자에게 임상실습 교육의 장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치료사가 자극을 받고 발전하는 기회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35.7%)은 송지호와 김미원(2013)의 연구에서 실시한 간호사 대상의 결과(44.4%)와 일치하였다[21]. 그러나 그 다음 순위로 작업치료사는 실습생 교육을 통한 후배 양성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24.0%)과 다르게 간호사는 13.9%의 적은 대상자만 응답을 하여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2014년 의류기사의 국가고시 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치과위생사가 4,798명, 물리치료사가 3,586명, 방사선사가 2,288명, 임상병리사가 2,184명, 안경사가 1,674명, 작업치료사가 1,320명이었다[23]. 즉, 작업치료사는 면허소지자의 배출이 200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으나[24] 아직도 다른 의류기사와 비교해 배출 인원이 적은 상황이므로 많은 작업치료사들은 스스로 후배 양성의 사명을 지니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작업치료사 직무에 대한 임상실습 지도자의 중요도와 신입 작업치료사의 수행도

구분	내용	임상실습 지도자의 중요도		신입 작업치료사의 수행도	
		(M ± SD)	순위	(M ± SD)	순위
상담	내담자 정보 확인	3.98 ± 0.87	23	3.63 ± 0.95	2
	내담자 욕구 파악	4.07 ± 0.88	13	3.30 ± 0.96	7
평가	평가계획 수립	4.26 ± 0.81	5	3.25 ± 1.03	8
	신경-근육-골격계 및 운동관련 기능 평가	4.11 ± 0.75	6	3.47 ± 0.97	3
	상지 기능 평가	4.11 ± 0.77	6	3.69 ± 0.98	1
	움직임 능력 평가	4.08 ± 0.80	11	3.42 ± 0.94	5
	발달검사	3.79 ± 0.91	29	2.74 ± 1.05	24
	감각기능 평가	4.03 ± 0.88	19	2.87 ± 3.11	21
	정신기능 평가	4.03 ± 0.88	19	3.06 ± 0.94	15
	의사소통 평가	4.05 ± 0.82	16	3.41 ± 0.93	6
	일상생활활동 평가	4.33 ± 0.81	3	3.46 ± 1.03	4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평가	4.04 ± 0.84	17	3.08 ± 1.08	13
	사회기술 평가	3.90 ± 0.82	27	2.57 ± 4.03	32
	작업수행영역 평가	3.99 ± 0.82	22	3.08 ± 1.04	13
	환경요소 평가	3.97 ± 0.87	25	2.91 ± 1.02	19
중재 계획	문제 확인	4.48 ± 0.88	1	3.14 ± 0.93	11
	치료계획 수립	4.42 ± 0.91	2	2.92 ± 0.93	18
중재	신경-근육-골격계 및 운동관련 기능 증진	4.09 ± 0.81	9	2.69 ± 3.94	26
	상지 기능 증진	4.10 ± 0.81	8	3.16 ± 0.97	10
	움직임 능력 증진	4.06 ± 0.83	15	3.10 ± 0.95	12
	발달기능 증진	3.78 ± 0.91	30	2.59 ± 0.88	30
	감각기능 증진	3.98 ± 0.84	23	2.62 ± 0.90	28
	정신기능 증진	3.97 ± 0.85	25	2.58 ± 0.86	31
	의사소통능력 증진	4.04 ± 0.84	17	2.90 ± 0.88	20
	일상생활능력 훈련	4.27 ± 0.87	4	3.03 ± 0.89	16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훈련	4.09 ± 0.86	9	2.85 ± 0.91	22
	사회기술 향상	3.90 ± 0.85	27	2.66 ± 0.88	27
	보조기 의수족 제공	3.47 ± 0.90	34	2.31 ± 0.90	33
	학교작업치료	3.22 ± 1.04	37	2.16 ± 0.90	34
	방문작업치료	3.26 ± 1.00	35	2.12 ± 0.94	35
운전재활	3.26 ± 0.95	35	2.10 ± 0.90	37	
직업재활	3.54 ± 1.04	33	2.11 ± 0.90	36	
교육 관리	교육(보호자, 환자, 지역사회, 인력 등)	4.02 ± 0.97	21	2.96 ± 0.96	17
	관리(문서작성, 수가, 물품, 안전 등)	3.70 ± 0.93	31	3.20 ± 0.95	9
자기 개발	연구 활동	3.70 ± 0.87	31	2.60 ± 0.92	29
	전문성 향상	4.07 ± 0.81	13	2.71 ± 0.87	25
	자기관리	4.08 ± 0.86	11	2.81 ± 0.96	23

또한 임상실습 교육의 단점으로 업무의 과중이라는 측면에서는 작업치료사(40.3%)와 간호사(38.9%) 모두 가장 힘들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순위로 작업치료사는 치료실 혼잡과 환자들의 불만(34.3%)을 꼽았지만 간호사는 19.4%의 적은 대상자가 응답을 하여 다

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종합병원 혹은 상급종합병원의 작업치료실 공간이 협소하여 한정된 공간에 임상실습을 하는 학생의 인원이 늘어나면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임상실습 지도자가 실습생 평가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기본적인 소양과 매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여 안성자와 안소운(2012)의 연구에서 물리치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22]. 다만 그 다음 순위로 작업치료사는 출석과 레포트, 의사소통능력, 전공지식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나, 물리치료사는 그것의 역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환자를 중재할 때 주로 물리치료사는 움직임 과학과 기술을 적용하는 반면, 작업치료사는 과제를 분석하고 수행 환경을 고려하는 적용을 한다[25]. 즉, 물리치료사는 실제 적용하는 기술을 위한 전공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작업치료사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과제와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레포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향숙, 장기연, 정민예, 구인순, 우희순(2014)의 연구에서 직무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의 1~5위 내의 항목을 살펴보면, 내담자 욕구 파악(1위/1위)과 상지기능 증진(2위/2위)은 중요도와 수행도 모두 높았고, 일상생활능력 훈련(3위)과 자기관리(4위), 일상생활활동 평가(5위)는 중요도가, 내담자 정보 확인(3위)과 상지기능 평가(4위), 신경-근육-골격계 및 운동 관련기능 증진(4위)은 수행도가 높았다[15].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지도자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선행연구의 상위 순위였던 내담자 욕구 파악은 13위, 상지 기능 증진은 8위, 일상생활능력 훈련은 4위, 자기관리는 11위, 일상생활활동 평가는 3위로 전반적으로 상위 그룹에 있었다. 즉, 작업치료사들이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무에 대해 임상실습 지도에서도 거의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신입 작업치료사의 수행도는 선행연구의 상위 순위였던 내담자 욕구 파악은 7위, 상지 기능 증진은 10위, 내담자 정보 확인은 2위, 상지기능 평가는 1위로 다소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신경-근육-골격계 및 운동관련 기능 증진은 26위로 경력

이 있는 치료사보다 수행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임상실습 지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무는 중재계획으로 문제 확인과 치료계획 수립이 각각 1위와 2위로 나타났으나, 신입 작업치료사의 수행도는 11위와 18위로 다소 낮은 편이었고, 중재 중 일상생활능력 훈련도 임상실습 지도자는 4위로 중요하게 보았으나 신입 작업치료사는 16로 다소 낮은 수행도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재와 중재계획에 대해 임상실습 지도자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교육하고 신입 작업치료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경력 부족으로 인해 수행도에서는 낮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학과의 임상실습이 간호과정을 대상자에게 적용하는데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관찰 위주로 되어 있고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는 과제를 제출하기 위한 과정으로만 생각하여 임상실무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한 것과 같이 [26], 작업치료(학)과의 임상실습 또한 환자에게 중재를 적용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신입 작업치료사가 되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업치료사 면허가 있으면 작업치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것은 기본적인 실제 표준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실상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 것이다[27].

상담 직무 중 내담자 정보 확인에서 임상실습 지도자의 중요도는 23위로 다소 낮았지만, 신입 작업치료사의 수행도는 2위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를 제외하고 신입 작업치료사의 수행도가 높은 5위 내의 4개는 모두 평가 직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는 학교교육과 임상실습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만큼 신입 작업치료사의 수행도가 높았다. 상담 또한 미국의 경우 실습생들에게 환자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전체 실습의 77%만큼 많이 주어지기도 하고[28], 국내에서도 학교교육과 임상실습에서 학생 지도 시 전공 공부 외에 접근해야 하는 부분으로 강조하는 만큼 수행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대상자 선정 시 지역별 배분만을 고려한 층화임의표본 추출을 하여 대표성을 가지기에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가 의료기관

에 근무하는 성인 작업치료사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치료사의 모든 업무 범위를 포함하는 2013년 작업치료사 직무[15]를 토대로 작성된 설문지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연구대상에 맞는 연구도구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작업치료, 방문작업치료, 운전재활, 직업재활 등의 직무는 중요도와 수행도 모두 낮아 당연한 결과를 보이는 오류가 나오게 되었다. 셋째, 연구도구 작성 시 예비조사에 의한 수정 및 보완만 있었을 뿐 타당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국내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성인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임상실습 지도자와 신입 작업치료사의 견해를 확인하고, 이로써 신입 작업치료사가 겪는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상실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임상실습 지도자는 중재계획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도하지만 신입 작업치료사는 평가의 수행은 잘 되었으나 중재와 관련한 직무에서는 어려움을 보였다.

본 연구는 면허를 취득한 후 실제 작업치료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을 때 과거에 본인이 경험했던 임상실습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것으로 임상실습 지도의 내용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 [1] B. Jung, S. Sainsbury, R. M. Grum, S. Wilkins, and J. Tryssenaar, "Collaborative Fieldwork Education with Student Occupational Therapists and Student Occupational Therapist Assistants," *Can. J. Occup. Ther.*, No.69, pp.95-103, 2002.
- [2] J. T. Cavanaugh and S. K. Cohen,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Person-centered

- Healthcare Communication Skills: An Interprofessional Shared Learning Model," J. Prev. Assess. Rehabil, No.41, pp.293-301, 2012.
- [3] D. M. Costa and A. Burkhardt, "The Purpose and Value of Occupational Therapy Fieldwork Education," Am. J. Occup. Ther, Vol.57, No.6, p.644, 2003.
- [4] 한국작업치료교육인증위원회, 한국작업치료교육인증위원회 인증심사지침서, 2014.
- [5] 이미자, 김경미, 이재신, 이택영, 강대혁, 이경식, 유은영, "작업치료 교육에 있어서 임상실습교육 현황 분석",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12권, 제2호, pp.105-117, 2004.
- [6] 이향숙, 장기연, 우희순, 윤여용, "작업치료(학)과 임상실습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22권, 제3호, pp.37-56, 2014.
- [7] 이재신, 전병진, 김수경, 장기연, 정민예, 유은영, 백영림, 함보현, "신입 작업치료사의 국가시험 실기과목 점수와 직무능력의 상관성",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21권, 제1호, pp.81-93, 2013.
- [8] 김경미, 이재신,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과목과 직무와의 연관성에 관한 조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10권, 제2호, pp.109-118, 2002.
- [9] 홍은경, 김경미, "신입 아동작업치료사의 임상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20권, 제4호, pp.29-42, 2012.
- [10] 강영한, 박종삼, "임상실습을 경험한 보건계열 학생들의 임파워먼트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7호, pp.223-231, 2012.
- [11] 구인순, 정민예, 유은영, 박지혁, 이재신, 이향숙, "국내 작업치료사의 역량지표 개발",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23권, 제1호, pp.137-149, 2015.
- [12] 이향숙, 송영진, 이미영, 우희순, 김지현, 차유진, 권이영, 윤여용, 박지은, 정준식, "작업치료 임상용어체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작업치료 의무기록 시스템 현황 및 용어체계 표준화 요구도 조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22권, 제4호, pp.121-133, 2014.
- [13] 정민예, 이재신, 유은영, 김정란, 박혜연, 유인규,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과목개선 실행방안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16권, 제3호, pp.111-124, 2008.
- [14] 이택영, 강대혁, "현행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10권, 제2호, pp.163-170, 2002.
- [15] 이향숙, 장기연, 정민예, 구인순, 우희순, "2013년 작업치료사 직무분석",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22권, 제2호, pp.89-112, 2014.
- [16] 이향숙, "작업치료사 핵심직무 분석과 경력과 치료 분야에 따른 직무 차이 비교",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19권, 제1호, pp.1-14, 2011.
- [17] 용준환, 최혜숙, 정원미, 이지연, 박혜연, 조범영, 이미영, 이지영, 홍승표, "DACUM 기법을 통한 작업치료사의 직무분석",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19권, 제2호, pp.97-109, 2011.
- [18] 이향숙, 정민예, 정보인, 유은영, 박수현, 강대혁, "국내 작업치료사의 직무특성조사 및 직무분석",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18권, 제2호, pp.1-21, 2010.
- [19] 김진경, 강대혁, "작업치료(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에 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12권, 제2호, pp.91-103, 2004.
- [20] 김진경, 박소연, 이택영, 강대혁, "작업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습에 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12권, 제1호, pp.69-82, 2004.
- [21] 송지호, 김미원, "간호학 임상실습교육 실태 조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2호, pp.251-264, 2013.
- [22] 안성자, 안소윤, "물리치료 임상실습 교육의 현황과 인식",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제19권, 제2호, pp.43-53, 2012.
- [23] <http://www.kuksiwon.or.kr>
- [24] 정민예, 차유진, "국내 작업치료 인력 현황 및 수급분석",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17권, 제4호, pp.113-127, 2009.

- [25] R. Lysaght and J. Wright, "Professional Strategies in Work-related Practice: An Exploration of Occupational and Physical Therapy Roles and Approaches," *Am. J. Occup. Ther.*, No.59, pp.207-217, 2005.
- [26] 김금이, 이보영,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pp.885-896, 2014.
- [27] C. H. Hsieh, K. Putman, D. Nichols, M. E. McGinty, G. DeJong, R. J. Smout, and S. Horn,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y in Inpatient Stroke Rehabilitation: The Contribution of Therapy Extenders," *Am. J. Phys. Med. Rehabil.*, Vol.89, No.11, pp.887-898, 2010.
- [28] C. R. Johnson, K. P. Koenig, C. V. Piersol, S. E. Santalucia, and W. Wachter-Schutz, "Level I Fieldwork Today: A Study of Contexts and Perceptions," *Am. J. Occup. Ther.*, Vol.60, No.3, pp.275-287, 2006.

저자 소개

이 춘 엽(Chun-Yeop Lee)

정희원



- 2004년 2월 : 인제대학교 작업치료학과(작업치료학사)
- 2009년 8월 : 인제대학교 U디자인학과(디자인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가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주거환경과 재활, 지역사회작업치료